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

기 백 석*

1. 靑少年期의 의미와 특징

청소년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하는 것은 사람마다 약간 다르다. 빨리 오고 빨리 끝나는 사람도 있고 늦게 와서 늦게 끝나는 등의 여러 형태가 있기 때문이다. 편의상 12~13세로 잡아 두면 무난하다. 즉 청소년기는 思春期에서 시작하여 成人期로 이행하는 중간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특징은 2차 性徵을 포함한 신체 발육과 이에 따르는 심리적 사회적 주요 적응기간이다. 여자는 12세 정도에서 初經(menarche)으로 신체성숙이 시작되고 남자는 그보다 1~2년 늦은 13~14세 경에 精子가 소변에서 나오거나 첫 射精을 한다. 일반적으로 시춘기는 여자가 남자보다 2년 먼저 시작했다가 2년 먼저 끝나는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사춘기의 첫 시작은 1세기에 1년 정도씩 빨라 진다고 한다. 이 시기에 있는 호르몬의 변화는 청소년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면에서 영향을 주는데 이 변화가 급격할수록 청소년이 겪는 느낌의 강도와 질이 비례한다. 청소년기란 인간이 독립적이고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감정적 폭풍의 시기요 스트레스의 시기이다. 예컨대 암전하던 소년이 반항적 공격적이 되고 모범생이 숙제를 하지 않고 학교에 결석하는가 하면 정직하던 아이가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자기만이 아는 비밀을 가지려 한다는 것 등이다. 청소년기의 정상적 갈등이 심하나

그렇지 않으나 하는 것은 사회적인 요인 즉 가정, 학교, 매스컴등의 영향도 받는다.

청소년들의 공통적 발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적 변화에의 적응으로서 본능적 충동의 제어와 승화이다. 즉 청소년들은 급격한 신체적 성장과 이차 성징의 출현을 성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표로 하나의 스트레스가 되어 반갑고 만족스럽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한편 부끄럽기도 하고 불안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어딘가 이상이 있지않나 걱정되기도 하여 남과 비교하기도 하고 의상과 몸치장에 관심을 쏟기도 한다. 자기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성인들의 행동이나 의상을 흉내내기도 한다. 성적충동의 급격한 증가는 남자의 경우 중기나 후기 청소년기에 정점을 이루어 自慰行爲로 해소해 나가는데, 남자 청소년의 80~90%가 자위행위를 한다. 많은 청소년들이 자위행위 자체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으나 그 자체가 해가 된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이에 수반되는 죄악감이나 불안이 더 문제가 된다. 성에 대한 소설 책을 읽음으로써 성적 충동을 어느 정도 해소 할 수 있으며 친구와의 농담 유모어도 상당한 역할을 한다. 여자의 경우 자위행위를 30~40%가 하고 또한 이들은 낭만적 환상이나 선생님 가수 영화배우등과의 낭만적 사랑에 빠지기도 한다. 어떻게 보면 사랑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녀 모두 미팅이나 단체 활동을 통해 호기심이 충족되고 성적충동이 간접적으로 발산되기도 한다.

* 중앙대학교의과대학 신경정신과

둘째, 主體性의 확립 (Identity formation)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적극적인 사람이 될 것인가 수동적인 사람이 될 것인가?' '현모양처와 직업 여성중 어느것을 택할 것인가?' '어떤 직업을?' '어떤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 나갈 것인가?' 등의 자기 이정표를 세워 나가야 한다. 인생의 목적과 자기 역할이 확립되지 않으면 흔들리게 된다. 주체성을 세우지 못하고 흔들리는 경우에는 정신적 위기를 맞게 되는데 이를 주체성 위기 (Identity Crisis)라 한다.

셋째, 부모로부터 심리적 해방과 독립을 추구한다. 많은 청소년들은 중반기부터 자신은 다 컸다고 생각하여 성인취급 받기를 원하는 반면 부모는 그대로 小兒로 취급하려한다. '이유없는 반항'이 시작되고 부모와 청소년간에 사소한 일로 신경전을 벌이기도 한다. 이러한 반항적인 행동은 이제까지 소아기의 의존적이던 부모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정서적으로 독립하려는 노력의 발로이다. 자기는 신체적으로 성장하였으니 어른으로 취급해 주고 좀더 많은 권리와 자유를 달라는 주장이다.

2. 청소년기의 문제점

인간은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심리적 갈등을 겪지만 청소년기는 더 많은 갈등을 겪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어린이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려는 중간과정이므로 신체적 인지적 발달의 촉진, 부모의 기대,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적응등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많은 부담을 느끼게 한다. 이로 인해서 일부의 청소년들 에게는 일시적인 정신적 불균형이나 부적응상태 혹은 정신적 장애가 나타난다. 청소년들이 흔히 겪는 심리적 정신생리적 장애로는 우울증, 불안장애, 자살 및 각종 사고 비행행동 그리고 정신 분열장애 등의 정신증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근원은 어린시절의 발달상의 장애가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생리적, 성적, 인지적 기능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현실적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사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과도한 경쟁 입시 진로문제 등의 현실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中三病, 高三病, 大四病등의 '입시 스트레스 증후군'은 우

리나라 청소년들의 입시 및 취직경쟁의 어려움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自我가 아직 미성숙한 상태에 있으므로 분리에 대한 불안, 분노심이나 공격적 충동에 대한 불안, 성적충동에 대한 불안 그리고 아직도 독립된 인격체로서 '홀로서기'에 자신이 없는 것에 대한 불안등의 정서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여기에 사회의 배금주의 사상, 쾌락풍조, 성적제일주의 등은 청소년들에게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는 자신이 패배자인 것처럼 느끼게 한다. 청소년들 자신도 자기의 능력수준이나 주변환경은 아랑곳 없이 오직 일류대학이나 돈을 많이 버는 직업등을 목표로 하게된다. 그러나 한정된 상급학교 제한된 취업의 기회는 많은 청소년들을 패배자로 남게 한다. 이러한 좌절감 패배의식 우울 불안 그리고 쾌락추구 의식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쉽게 약물의 유혹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다.

3. 약물 오·남용의 원인과 동기

청소년들의 약물 오·남용의 유발요인은 심리적 생물학적 및 사회적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가족력에서 볼때 유전적 요인이 자녀들의 약물 오·남용에 기여한다는 생물학적 관점이 있다. 이는 개인의 약물대사 및 약물에 대한 중추신경계 반응에 영향을 주는 선천적인 요소의 결합이나 다양성에 기인된다는 주장이다.

둘째, 약물 오·남용의 심리적 및 정서역동적 요인은 급성과 만성적 두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급성의 경우는 급성적 스트레스 상황 즉 중요한 인물의 상실 가족간의 갈등 학업성적의 부진등과 같은 스트레스에 처해 그 해결책으로 일시적으로 약물에 의존하자는 것이다. 만성적 경우는 인격구조와 약물사용간에 상관관계가 있다. 즉 성격장애 특히 반 사회적 인격장애에서 약물남용이 흔하다. 또한 부모 특히 모친과의 관계에서 의존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 성장한 후, 환경에서 오는 좌절이나 스트레스를 받을때 마음의 평화를 얻는 수단으로 쉽게 약물에 의존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약물 오·남용의 사회적 요인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대중매체를 통해 어릴때 부터 약광고를 접하고 있고 어디서든지 쉽게 약을 구입할 수 있다는 현실과도 관계가 있다.

약물 오·남용의 동기는 다음과 같은 8가지 유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① 모험추구형(adventure-seeking type)

청소년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흥분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고 무서운 영화나 이야기 그리고 부모들이 겁을 내고 막는 모험적 행동을 즐긴다. 이들은 욕구가 좌절될 때 흔히 본드(접착제)를 흡입하여 자신들의 내적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

② 평화추구형(peace-seeking type)

불안·우울·소외감·열등감등의 정서적 고통을 겪어온 청소년들은 마음이 항상 갈등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에 대한 열망이 대단하다. 이들은 이를 현실적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대신 약물을 복용하게 된다.

이들이 쉽게 찾는 약물로는 신경안정제 수면제 및 마리화나 같은 환각제 들이다.

③ 교우관계 추구형(frendship-seeking type)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친구를 쉽게 사귀고 친분을 유지하지만 일부에서는 사교성이 없어 마음이 있어도 쉽게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고독하게 지낼때가 많다. 이러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또한 친구관계를 맺기 위해서 대마초나 술을 가까이 하게 된다.

④ 힘 추구형(power-seeking type)

모든 인간은 상당한 힘을 발휘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들은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때가 있다. 그래서 힘의 추구를 위해 암페타민제(각성제)나 코카인을 섭취하게 된다.

⑤ 미적 감각 추구형(aesthetic-seeking type)

美의 추구는 조기 성인들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청소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美의 추구를 위해 LSD나 메스칼린과 같은 환각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⑥ 성적 추구형(sex-seeking type)

성적 주체성을 찾기위한 성적 갈등은 청소년기의 특유현상으로서 잘못되면 성적 난잡성이 발생한다. 청소년들은 이성에 관심을 갖게 되고 성유희에도 호기심을 가지나 자신의 성적 능력을 몰라서 시험하고 싶은 충동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동시에 갖고 있어 성적 충동을 약물 복용으로 해소하는 경향도 있다. 이들은 암페타민제나 코카인 같은 약물을 사용한다.

⑦ 초월명상 추구형(transcendenc-seeking type)

복잡하고 갈등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기! 우리 모두에게는 신비적이고 신성한 세계를 추구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다. 이러한 초월적 경위는 현실에서는 별로 경험할 수 없으므로 약물을 통해서 경험하고자 한다.

이와같이 청소년들은 7가지 유형중 한가지 또는 두가지 이상의 동기를 가지고 약물을 이용하게 되며 그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결국에는 약물 의존까지 될 수 있다.

4. 사용되는 약물과 그의 증상

약물남용의 목적은 남용자가 원하는 정신상태에 이르러고자 하는데 있다. 정신상태의 변화를 초래하는 약물은 그 종류가 다양하여 분류가 쉽지 않으나 다음 4가지-아편류(마약), 신경안정제, 각성제, 환각제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약물들은 서로 유사한 약리작용을 나타내었으므로 이 분류법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각성제에 속하는 히로뽕은 각성작용이 크지만 또한 환각작용도 있다.

1) 본드 및 흡입용제(inhalant)

가솔린, 신나, 라이타 용액, 접착제, 아교등의 물질에는 톨루엔 아세톤 벤젠등의 성분이 들어있어 환각작용을 일으킨다.

본드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개 정신이 없고 목과 머리가 아프며 흐물흐물한 몸체가 아른거린다고 한다. 그러나 몇번 사용하게 되면 마음먹은대로 환각작용이 일어나고 상상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예를 들면

공상과학영화에서 본 레이저광선을 자신의 손가락을 통하여 쓰는 경우가 있고 이 레이저광선으로 주위의 사물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향하여 쏜다고 한다. 또한 하늘에서 진주가 내려오고 새같이 날기도 하며 큰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 자신을 슈퍼맨으로 착각하여 높은데서 뛰어내려도 넓것간은 생각이 든다고 한다. 또한 성충동이 증가하여 지나가는 여자를 성폭행하고 싶은 생각도 한다.

다량 흡입할때는 신경마비가 올 수 있고 간, 신장, 뇌 등의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어 근육장애 운동장애 의식변화가 올 수 있다. 심각한 경우에는 심장의 부정맥, 뇌세포의 기능저하, 질식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2) 환각제

LSD, 메스칼린, psilocybin등이 있다. 투여 방법은 종류에 따라 흡연 흡입 정맥주사 피하주사등의 방법이 있다. 증상은 다음과 같다.

① 물체의 색깔이나 질감이 풍부하게 느껴지고 모양이 선명하게 보인다.

② 음악을 들을때 풍성하게 느껴지고 냄새와 맛이 진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③ 시간과 공간 감각이 변한다.

④ 감정이 풍부해 지면서 공감능력이 증진된다.

⑤ 무의식의 내용이 의식화 되어 어렸을 때의 상태로 퇴행할 수 있다.

⑥ 외부와 통합되는 듯 하다가도 異人感에 싸이기도 한다.

⑦ 자신의 영혼이 몸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을 보기도 한다.

부작용으로는 소위 'bad trip'이라고 하여 무엇에 놀라고 공포에 질린듯한 경험을 하게된다. 또한 약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치 약을 복용한것 같은 경험(Flash back)을 하기도 한다.

3) 신경안정제

불안 및 동통에 대한 치료제로 쓰이며 근육이완 및 마취효과가 있다. 다량 복용할 경우 졸림, 운동실조, 혼란감, 공격적 행동을 경험할 수 있다.

4) 암페타민(히로뽕)

히로뽕은 흔히 살빼는 약, 신경통 치료제, 잠안오는 약, 최음제등으로 오용되기도 한다. 이를 정맥주사를 하게되면 가장 효과가 좋은데 약물의 기운이 온몸에 '짜'하고 도는 듯한 쾌감을 느끼며 동시에 황홀한 느낌이 든다. 정신은 맑아지고 온몸에서 용기가 솟아나는것 같으며 마음먹은대로 일이 잘 될것같은 자신감이 생긴다. 아프던 신체부위도 아픈지 모르게 되고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함을 느끼지 못한다. 여자의 경우 생리중에 히로뽕을 투입하게 되면 생리가 끊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신경이 날카로와지며 누가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것 같은 피해망상과 환각을 경험하게 된다. 마치 천정에서 별레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 허깨비가 보일때도 있어서 공포를 느끼게도 된다.

5. 약물 오·남용의 특징과 예방대책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특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차적인 질환이다. 결핵의 원인이 결핵균인 것처럼 약물중독의 원인은 약물이다. 아무리 다른 노건이 호전되어도 결핵균이 제거되지 않으면 치료의 효과가 없듯이 약물남용 역시 약물이 제거되어야 치료가 된다.

둘째, 진행성 질환이나. 호기심으로 약물을 시도하는 단계에서 기분전환을 위해 사용하는 단계로 그러다가 약물남용단계 그리고 약물중독의 단계로 진행되어 가는 질환이다.

셋째, 가족적인 질환이다.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청소년이 약물중독이 되는 수도 있고 또한 이로 인해서 가족구성원 전체가 심한 좌절을 경험하게도 된다.

넷째, 만성질환이다. 약물남용은 거의 대부분이 재발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만성병들 처럼 완쾌되었다는 말대신 회복되었다는 말을 쓴다. 그래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며 적절히 관리해나가야 한다.

다섯째, 옮기 쉬운 질환이다. 같은 집단에 속해 있는 아이들에게 쉽게 전염된다.

여섯째,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질환이다. 약물의 직접작용에 의해 호흡마비로 사망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에서 가장 흔한 사망원인인 사고사, 자살, 타살은 약물남용의 상태에서 발생한 가능성이 높다.

약물남용의 예방 프로그램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차 예방 단계에서는 약물남용의 발생율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약물독성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약물남용 억제방안을 강구하고 동시에 법적 제제를 강화하며 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약물남용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제거시키기 위한 계몽교육과 국민학생이나 중학생등 저연령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또한 학교규칙을 강화하여 약물에 대한 호기심을 없애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2차 예방단계에서는 약물남용자를 조기에 발견

하여 조기에 치료해야 한다. 약물남용의 위험증후를 인지하고 자아개념을 확립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저항력을 강화시키고 가족 친구들과의 인간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약물남용의 위험증후는 다음과 같다.

- ① 학교성적 저하
- ② 가족과의 접촉기피
- ③ 부정적 성격변화(의욕상실, 정서적 불안정, 불안, 우울)
- ④ 신체적 변화(기침, 충혈, 장발, 퇴폐적 의상)
- ⑤ 비행행동(가출, 무단결석, 절도등)
- ⑥ 교우관계의 변화(과거 친구와 안 어울리고 낯선친구와 어울림)

3차 예방단계에서는 약물로 인한 기능상실을 회복하고 재활계획을 수립하여 악순환을 차단해야 한다. 청소년기 발달과업 수행사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연령에 합당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저항감 없이 약물남용 예방교육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